

악! ... 휴~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김도영이 5회말 타석에서 LG 에르난데스의 투구에 왼팔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김도영은 대주자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LG전서 팔꿈치 맞은 김도영 단순 타박상...결장없이 경기 소화 장현식 10일만에 복귀...턱수술 네일 덕아웃 등장 '가을' 기대감



‘호랑이 군단’이 부상에 올고 웃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7-5 역전승을 거뒀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13승 3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KIA는 이날 승리로 매직넘버를 ‘11’로 줄였다.

기분 좋은 승리가 기록됐지만 이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면들도 있었다.

5회말 2사 2루에 타석에 선 김도영이 LG 선발 에르난데스의 공에 왼쪽 팔꿈치를 맞으면서 자리에 주저앉았다. 팔꿈치 위쪽 부분, 보호대 경계 부분에 공을 맞은 김도영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대주자 홍종표로 교체됐다.

이어 최형우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5-2 리드는 잡았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김도영은 올 시즌 각종 기록을 만들면서 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 우승에도 도전하고 있는 KIA는 김도영의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어진 6회초 수비에서도 KIA는 다시 한번 속을 태웠다.

KIA 선발 양현종이 선두타자 오지환에게 솔로포를 허용한 뒤 김현수의 우측 2루타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가득했던 상황, 김범석의 타구도 중앙 담장 쪽으로 멀리 뻗어나갔다. 김경준 최원준이 몸을 날려 공을 잡으면서 귀중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펜스 수비 과정에서 최원준이 발목을 다치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 최원준은 투혼을 발

휘하면서 이 이닝은 마무리했지만 결국 7회초 수비에서 박정우와 교체됐다.

가슴 졸이면서 두 선수의 몸상태를 살펴본 KIA는 다행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도영은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타박상 진단을 받으면서 경기장으로 복귀해 선수단과 승리 세리머니를 했다. 그리고 4일 경기에서도 3번 타자 겸 3루수로 정상 출격을 했다.

김도영에 이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최원준은 며칠 쉬어야 한다.

이범호 감독은 4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김도영의 부상 장면을 보면서 별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걱정했다. 도영이 보호대가 얇고 작은 것인데 더 두꺼운 것을 구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웃음). 앞으로도 공에 맞을 일이 많은 것인데 걱정이다. 잘하는 선수들은 몸쪽 승부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최원준은 오늘 신다. 이상은 없는데 하루, 이틀 정도 발목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도영과 최원준의 부상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범호 감독은 5일에는 복귀 소식에 웃었다.

KIA는 지난 8월 25일 열구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장현식을 콜업했다.

이범호 감독은 “말소 당시에도 4-5일 정도면 다시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힘을 쓰다가 갑자기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10일을 뺐다. 원래 기용하던 대로 쓸 생각이야. 문제없이 던질 수 있다”고 장현식의 콜업 소식을 전했다.

이날 훈련 시간에는 제임스 네일이 덕아웃에 등장하기도 했다.

네일은 전날부터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는 등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가을 잔치’에 대한 기대



제임스 네일

감을 키우고 있다.

“몸 상태는 괜찮다. 걱정하시는데 맨날도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 보인 네일은 “먹는 게 힘들다. 어릴 때나 음식만 눈에 보인다. 여제는 라커룸에 피자가 있어서 힘들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턱관절 골절로 교정수술을 받은 네일은 현재 고무 고정기를 하고 있다.

가벼운 죽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네일은 “월요일에 고정기를 제거하면 마음껏 먹겠다. 어제는 김치찌개를 주문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엠텐을 통해 김치찌개와 황태국밥을 주문한 그는 건더기는 모두 골라내고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아쉬움을 달랠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황선홍을 넘어라” 손흥민 A매치 50골 도전

홍명보호, 오늘 서울서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B조 1차전

손흥민(토트넘·사진)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의 첫 무대에서 통산 A매치 골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소화한다.

이번 9월 A매치는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출항하는 홍명보호의 첫 실전이다.

팔레스타인(96위)과 오만(76위) 모두 한국(23위·이상 국제축구연맹 랭킹)과 전력의 격차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승리만이 ‘답’이다.

대표팀 ‘최고의 무기’인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동해 준다면 홍명보호의 데뷔승은 수월해진다.

손흥민으로서도 모처럼 골 욕심을 낼 개인적 이유는 충분하다.

2011년 아시안컵 인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은 손흥민은 지금까지 A매치 127경기를 소화하면서 48골을 넣었다.

한국 역대 국가대표 선수 중 통산 득점 랭킹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만약 손흥민이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에서 3골 이상을 넣는다면 황선홍(50골) 대전하나시티즌 감



독을 넘어 이 부문 2위로 올라서게 된다.

한국인 A매치 최다 득점자는 차범근 전 감독이다.

대한축구협회 기록으로는 차 전 감독이 A매치에서 58골을 넣은 것으로 돼 있으며, 그중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하는 A매치 득점은 55골이다.

올해 A매치 6경기나 남아있는 만큼, 손흥민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차 전 감독을 제치고 최다 득점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칼을 더 위협적으로 휘두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리그로 손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에도 올라 본 자타공인 톱클래스 공격수다.

이런 손흥민을 비롯해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동경(김천), 이재성(마인츠), 엄지성(스완지), 양민혁(강원FC) 등 2선 공격자들이 대표팀에 차고 넘친다.

손흥민과 다른 2선 공격수들로 파괴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공격 조합을 찾아내는 건 홍 감독 앞에 놓인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손흥민은 2선 왼쪽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적도 많다. 역시 왼쪽이 익숙한 황희찬이 그 자리를 맡고 손흥민을 앞으로 올려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하는 식이었다.

다만, 손흥민이 어떤 자리를 맡길 실제 움직임은 ‘프리롤’에 가까웠다. 원래 자유롭게 뛰는 성향이 강한 이강인과의 ‘교동정리’도 필요하다.

홍 감독은 지난 2일 첫 훈련에 앞서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왼쪽 사이드에서 벌려 있으면서 앞의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선수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손흥민이 이번 2연전에서 새로 쓸 기록은 최다골 기록뿐이 아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A매치 127경기에 출전해 이영표 전 축구협회 부회장과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4위에 올라가 있다.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중 한 경기에만 출전해도 이 부문 단독 4위가 되는 손흥민이다.

/연합뉴스

올 세계 축구 이적시장 돈 덜 썼다

1조2천억원 줄어...사우디 ‘큰손’ 추가 투자 주목

전 세계 축구 구단이 올여름에는 전력 보강을 위해 국제 이적시장에 작년만큼 돈을 풀지 않은 결과 조사됐다.

지난해 타국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를 데려오는 데 10조원가량을 투자한 팀들이 올여름에는 1조2000억원 이상 돈을 덜 쓴 결과 파악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전 세계 각 구단이 타국 리그에서 댄 선수 영입에 지출한 이적료 총액이 64억6000만달러(약 8조6600억원)로 파악됐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금액은 올해 6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세 달간 이뤄진 계약을 토대로 산정됐다. 다만 FIFA는 국경을 넘어 타 리그로 이적한 사례를 집계했으나 한 리그 내에서 벌어진 이적은 포함하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AFC 본머스에서 뛰다가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에 합류한 도미니 솔란케의 이적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지출 규모가 줄어든 데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줬다.

우선 지난해 여름 8억7500만달러(약 1조 1700억원)를 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인 4억3100만달러(약 5800억원)를 지출하는 데 그쳤다.

이적시장이 10월 초에 마감되는 사우디 프로리그의 ‘큰손’ 구단들이 선수 영입에 추가로 투자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EPL 등 잉글랜드 리그도 해외 선수를 사오는데 쓰는 지출 규모를 줄였다. 지난해 여름 20억달러(약 2조6800억원)를 지출한 잉글랜드 구단들은 올해는 12억6000만달러(약 1조6800억원)를 투자했다.

반면 남미 쪽은 늘었다. 남미축구연맹 소속 팀은 도합 2억4700만달러(약 3300억원)를 썼다. 전년 동기 대비 1800억원가량을 더 지출했다.

/연합뉴스